

시온 주보

제2491호
2024년 2월 25일(나해)

사순 제2주일

그리스도의 변모

라파엘로 산치오
(Raffaello Sanzio da Urbino, 1483-1520)
1517-1520년 경, 나무에 유채
410x279cm, 바티칸미술관, 바티칸



입당 송 | 시편 27(26), 8.9 참조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제1독서 | 창세 22,1-2.9ㄱ.10-13.15-18

화답 송 | 시편 116(114-115), 10과 15.16-17.18-19ㄱ,ㄴ(◎ 9)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면서도 나는 믿었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에,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

○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

○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뜰에서,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

제2독서 | 로마 8,31ㄴ-34

복음환호 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 음 | 마르 9,2-10

영성체 송 | 마태 17,5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변모, 말이 없는 말, 자랑이 없는 참빛



이근상 시문 신부 | 예수회

주님의 변모, '새하얀 빛'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힘자랑도, 홀로 우뚝 선 마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변모 사건의 위치는 언제나 당혹스런 수난 예고에 이어진 뒷자리였습니다. 변모는 이를테면 밤을 낮으로 뒤바꾸는 강렬한 태양이 아니라 '수난'이라는 밤길에 내민 손,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십자가와 죽음, 메시아와 양립할 수 없는 실패의 예고로 제자들이 길을 잃었을 때, 변모는 빛으로 함께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도 길을 잃어 빛이 필요한 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해 정초 아침, 안부차 드린 전화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어눌했고, 저는 즉시 뇌졸중일지도 모른다는 밀도 끝도 없는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당장 119를 불러 가까운 응급실로 가시라고 말씀드렸지만, 번거로움에 익숙치 않은 아버지는 어찌어찌 걸어서 근처 병원을 찾았고, 그렇게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뇌졸중. 그것도 너무 심한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있었습니다. 단 한 문장도, 단 한마디도, 제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 채, 거친 호흡과 신음으로 침상에 묶여있었습니다. 그해 한여름까지 꼬박 반년을 아버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과 함께 아위어 가다가 주님 품으로 떠났

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해에 일어난 아버지의 죽음은 제게 여전히 낯선 비현실입니다.

아주 '바싹'이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도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그것도 누워서 거동하지 못하는 이의 마지막은 처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게 줄어들고, 모든 게 작아지며, 모든 게 사그라진 뒤, 정말이지 순하고 순한 약함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욕심도 어떤 주장도 다 씻겨진 하얀 부드러움, 아무 말도, 아무 손짓도 없이 바싹 마른 십자가, 순하고 하얀 빛이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한번은 닮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버지의 빛나는 변모가 그때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바싹 마를 존재입니다. 세상은 이를 병이라 부르고, 실패라고도 하며, 운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 삶은 변모일 뿐입니다. 어둠 속 두려움이야 세상과 똑같을 수 밖에 없지만 믿는 이는 어둠 속에서 '그의 말을 듣는'(마르 9,7 참조) 믿음으로 변모합니다. 그 믿음은 삶이 더 어두워져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는 말, 자랑이 없는 참빛이 우리의 계속되는 변모, 어둠 속 믿음을 비추고, 우리의 걸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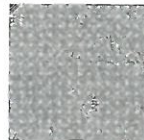
이 거대한 그림은 거장 라파엘로의 유작이며, 그가 임종할 당시 옆에 놓여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하는 이 그림에는 흰색 옷을 입고 변모하시는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며, 제자들이 그 주변인 그림 상단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길은 대부분 마귀 들린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깊이 새김



유임봉 스테파노 | 작가

저는 캘리그래피 작가이기도 하지만 돌에 글자와 그림을 새기는 새김 예술(전각) 작가이기도 합니다. 전각은 흔히 '도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름을 새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름이 생기고 존재와 존엄의 가치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루는 전각 작업은 그 가치만큼 많은 사유를 작품에 담아야 합니다. 각자의 이름에는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의 사랑과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그 이름의 의미를 헤아려보아야 하고 그 주인공의 삶을 축복해 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도장은 글자가 반대로 새겨져야 날인 후 맞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글자의 반대편에 서서 그 이름의 주인과 마주해야 합니다. "남이 너 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루카 6,31)는 주님의 복음 말씀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작업 과정은 언제나 거룩한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새김.' 성경에는 '새기다.'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마르 4,24 참조) 마음에 새기고, (신명 6,6 참조) 그 가르침을 되새겨 지키라고(묵시 3,3 참조) 가르칩니다.

이렇듯 '새김'이라는 예술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실천하는 신앙인의 삶과 매우 흡사합니다. 딱딱한 돌은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글자와 그림이 새겨지면 돌은 비로소 표정을 짓게 됩니다. 오랜 시간 손에 쥐고 하느님의 말씀을 새기다 보면, 차갑던 돌은 체온이 전해져 따뜻한 생명으로 변합니다. 그 생명은 이제 세속에서 무뎠던 신앙인의 삶을 은총과 평화의 표정으로 바꾸어 줍니다. 칼로 돌을 파내는 것은 과거의 아픔과 잘못을 비워내는 과정이며 그곳에 물감을 넣으면서 다시 고귀함과 희망이 채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 선물용으로 세례명 도장을 의뢰하십

니다. 저는 이 도장을 두 번째 도장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며 이미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도장을 선물로 받습니다. 세례식 때 축성된 성유를 이마에 바르며 새겨지는 '인호(印號)'가 그것이며, 여기에는 하느님의 자녀로 못박힌다는(날인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인호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하느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깊게 새겨진 도장일수록 날인된 결과물 또한 선명합니다. 인호는 세상의 그 어떤 도장보다 깊게 새겨진 도장입니다. 수업중에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깊게 새기세요, 깊이 새기세요." 물론 날인한 결과물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지만, 그보다 말씀을 돌에 새기는 우리는 작가이기 이전에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의 봉사직으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그것은 먹물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느님의 영으로 새겨지고, 돌판이 아니라 살로 된 마음이라는 판에 새겨졌습니다."(2코린 3,3)

한컷
교리

우리는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
단식재와 금육재, 매주 금요일에 금육재를 지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먹는 즐거움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멀리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마르코와 함께 떠나는 복음 여행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마르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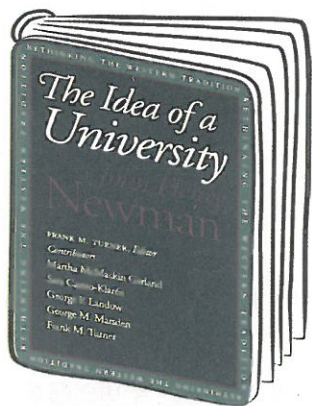
이영제 요셉 신부 |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교수

‘도대체 이 고통에서 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 까?’ 질병에 짓눌려 살아가야 하는 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입니다. 여기 중풍이라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느끼는 고통은 단지 육신의 아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래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자괴감. 나아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하느님에게 질병이라는 벌을 받았다는 통념. 병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미 받고 있는데, 중풍 병자는 사회적으로 죄인이라 낙인이 찍힌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삶 자체가 고통이요, 숨 쉬는 순간 모두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은 점점 그를 지치게 만들고,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는 현실은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들이 그에게 소리칩니다. 너무나도 밝게 웃는 친구들의 미소가 그를 더욱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친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어떤 병이든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라는 사람이 마을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안 구석에 처박아 놓았던 들것에 그를 눕히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친구들의 간절함에 중풍 병자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아, 정말 다시 걸을 수 있단 말인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너무

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그분 곁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을 치는 사람,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주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나도, 나도 만나고 싶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 순간 친구들이 병자를 들것에 단단히 묶고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벗겨내고 끈으로 들것에 묶었던 친구를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따뜻한 시선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한다는 그분,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들것에 실린 채 눈물을 흘리는 중풍 병자와 그의 친구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조금은 투박한 문체로 전하는 마르코의 기적 사화이지만,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면 중풍 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은 너무나도 드라마틱합니다. 쓸모없고, 버림받았으며, 심지어 죄인이라는 주홍 글씨까지 새겨진 채 살아야 했던 저주받은 사람. 하지만 그를 사랑해 준 친구들. 그리고 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씀에 가슴이 요동을 치며 하느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신도 그분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예수님의 용서는 단순히 병의 치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삶 전체를 되돌려주는 전인적인 치유요 구원이었습니다.



도서 '대학의 이념'

대학은 무엇하는 곳인가? 대학에 대한 가톨릭적 비전?



김우선 데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대학 입학철이 다가옵니다. 대학에 진학하게 된 새내기들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열은 유별납니다. 그런데 왜 대학에 진학했냐고 신입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소신 있는 답변을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들은 답변은 “남들이 가니까.”, “부모님이 가야 한다고 해서.” 등이었습니다. 기성세대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는 학벌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에 간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대학, 특히 명문대를 통해 얻게 되는 상징적, 문화적 자본뿐 아니라 교우 관계를 통해 맺게 되는 인맥이 사회적 자본이 되어 일생에 도움이 된다는 관찰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대학 정책도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성숙한 시민의 양성이라는 관점보다는 경제성, 효율성의 관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학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비전은 무엇일까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교회의 심장으로부터>(1990)라는 가톨릭계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이나, 21세기 예수회 대학의 방향을 밝힌 예수회 총원장 콜벤바흐의 <예수회 대학 교육에 있어서 신앙의 봉사와 정의의 구현>(2000)은 훌륭한 안내가 되지만, 일단 2019년 시성된 존 뉴먼 추기경의 <대학의 이념>(1852)은 좋은 출발점입니다. 이 책은 서양 대학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고전입니다.

뉴먼에게 대학은 전공 중심의 단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습득·활용하는 ‘지식기술자’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이를 넘어서서 학생들이 사유하는 훈련을 받고 판단

력을 형성하여 보편 지식을 배우고 활용하는 ‘지성인’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뉴먼은 포괄적 능력을 갖춘 정신의 함양을 위해 교수와 학생의 역동적인 상호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일반적인 지식은 집에서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지만, 그 지식의 분위기, 색조, 열정, 그것을 담지하고 사는 삶 등을 배우는 것은 교수와 상호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흔히 담긴 교수와 이루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와 인격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정신의 계발에도 스승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대학은 … 자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씩 다 알고 있는, 영양을 주는 어머니(Alma Mater)이지, 주조장이나 화폐 주조소, 혹은 밭아 돌리는 바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톨릭적 지성인 교육은 오늘날 시급합니다. 법률, 의료 등 분야마다 전문가는 많지만 ‘지식기술자’ 또는 ‘영혼 없는 전문가’처럼 보이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 <오픈하이머>에서 익히 이런 전문가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핵무기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양극화, 민주주의의 위기 등 현시대의 이슈는 단지 양심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성적으로도 기술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을 넘어서 문제나 사안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안건들입니다.

한국의 대학, 적어도 가톨릭계 대학은, 학생들을 이런 지성인으로 양성하는, 학문과 교육의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멋지게 자라는 중



임여주 아네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 불안함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잠깐 불안해하다가도 곧 그 생각이 사라져 다시 불안하지 않은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이나 이미지, 충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괴로워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강박적 사고’와 불안을 없애기 위해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강박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 질환을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강박증은 평생 유병률이 약 2~3% 정도 되는 흔한 병으로, 소아와 청소년에게도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지만, 치료 과정이 결코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오해의 말이 치료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강박증을 포함한 모든 정신 질환은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문제이지, 의지가 부족하거나 정신력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캐나다의 작가 테레사 토튼이 쓴 청소년 소설 《13층의 슈퍼 히어로》는 열다섯 살 소년 애덤이 강박증을 치료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애덤은 ‘정화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 이웃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달립니다. 불안을 느낄 때면 머릿속으로 소수(素數)를 외우거나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고 발을 구릅니다. 이제 됐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애덤의 정화 의식입니다. 정화 의식을 치르는 자신이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

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주변인들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하던 애덤은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치의 선생님이 지도하는 청소년 강박증 지원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곳에서 강박증이 있는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되지요. 건강 염려증, 식이장애, 폐소 공포증 등 각기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치료를 위한 아주 작은 노력에도 가장 큰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친구들 덕분에 애덤은 자기도 모르는 새 조금씩 마음의 힘을 쌓아갑니다. 치료 과정이 늘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생각하면 다시 세 발짝 뒷걸음질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지치고 힘든 애덤에게 다정한 이웃 폴란스키 부인은 말합니다. “힘든 일은 금방 지나갈 거야, 애덤. 멋지게 자라는 건 정말 힘든 일이란 다.”(314쪽)

강박증이 있는 청소년은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든 성장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 증상이 대체 언제 끝날지, 끝나기는 할지 답답하고 두려울 겁니다. 외롭기도 하고요. 그 사고와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청소년의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힘들어서 전문가와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용기 내어 오늘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의 우선순위 세우기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인생은 B(birth, 탄생)와 D(death, 죽음) 사이의 C(choice, 선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네 삶을 아주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면 선택의 폭은 크지 않습니다. 늘 선택하던 방식 또는 습관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일이거나 새로운 상황에서라면 선택의 폭은 훨씬 넓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까요? 왜 그것을 선택할까요? 선택에는 알게 모르게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바가 있죠. 이 목적을 다른 말로, 추구하는 ‘가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쉬는 날 근교에 있는 산을 오른다면, 그 사람은 ‘건강’ 또는 ‘운동’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쉬는 날인데 하루 종일 집에서 잠을 잔다면, 그 사람은 ‘쉽’ 또는 ‘피로 해소’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겠죠.

이처럼, 우리는 많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지금 얻고자 하는 가치가 하나가 아니라 둘, 셋이라면 어떻게 하죠? 가치는 말 그대로 값어치 있는 것,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고 나쁨의 우열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내게 어느 가치가 더 먼저인가?’ 하는 우선순위, 곧 질서가 있을 뿐입니다.

몸이 약해서 운동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이라는 가치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산에 가겠죠. 반면에, 건강한 편이지만 요즘 계속해서 피로가 쌓인다면, ‘쉽’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여 집에서 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몸이 약해서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워야 하는 상태인데, 힘들다는 이유로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몸이 약해서 힘들게 느끼고 그래서 쉬고 싶은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쉬기만 한다면 그 선택이 이 사람에게 참된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선순위(질서)의 문제입니다. 흔히 ‘세상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이분법적으로 나눠 “세상의 가치 말고 복음의 가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가치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세상의 가치인 ‘부’(물질)만 보더라도, 하느님께서 구약의 선조들에게 부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창세 26,12-13; 잠언 10,22 참조) 건강, 명예, 성공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러한 것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십니다.

문제는, 이 많은 가치 중 어느 것을 우선하느냐입니다.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고 계시는지요?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마태 6,33)

상단 QR코드를 통해 지난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옹기장학회 기금 출연 안내

옹기장학회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소망과 꿈이 담겨있는 장학회입니다. 아시아, 특히 북방선교에 투신할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장학회를 함께 키우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신언 몬시뇰 / 이사장: 정순택 대주교

옹기장학회 기금 출연하는 방법: 일시불 또는 정기적으로 정

한 금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에게는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계좌: 국민은행 375301-04-076713, 우리은행 454-037208-13-001, 신한은행 140-008-715396, 농협 386-01-012782 /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10년 3월 1일 김옥균 바오로 주교(85세)

교구청 알림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주제: 가톨릭사회복지정신에 입각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자 /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때, 곳: 2월29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문의: 02)727-2251

2024 모세 오경 특강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 내용: 모세 오경(성경 지참)
때, 곳: 3월7일(목)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의: 조창수 신부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통독 아카데미

가톨릭 영유아(만5세 미만) 부모 교육

주제: 일상 속에서의 신앙교육
강사: 박중수 신부(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부국장)
때, 곳: 3월13일(수) 오전 10시~12시30분, 영성센터 202호 (구 계성여고) & 온라인교육(ZOOM)-양방향 동시 진행
신청: 2월26일(월) 10시~3월6일(수) 16시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수
문의(주최):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슬픔 속 희망찾기' 유가족 자조모임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
프로그램: 독서(대면·비대면), 아트테라피, 마음 명상, 마음돌봄, 컬러링, 글쓰기 등
프로그램 시간: 홈페이지(3079.or.kr) 참조
신청기한: 2월29일까지 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전화(02-727-2495) 접수
총진행일정: 3월~12월까지(매월 1회 총 8회기 모임 예정)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주교좌 명동대성당 상반기 견진성사

신청대상: 세례성사와 첫영성체를 받은 20세 이상 신자
신청기간: 구비서류 지참 후 내방 접수(자세한 일정과 서류는 명동성당 홈페이지-성당소식 참고)
교육일정: 4월7일~5월12일 13시30분~15시30분(5주간 / 5월5일 휴강)
교리장소: 교구청 401호 / 조별나눔-교육관
견진성사: 5월19일(일) 오후 2시, 대성전
문의: 02)774-1784 성당 사무실

해설이 있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도보순례 접수

회비: 1인 7천원 / 문의: 02)2269-0413
신청: 2월26일(월)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 선착순 접수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일시	코스
3월5일(화) 오전 9시부터	1코스 말씀의 길 (명동대성당~가톨릭대 성신교정)
3월9일(토) 오전 9시부터	2코스 생명의 길 (가회동성당~서소문박네거리순교성지)
3월19일(화) 오전 9시부터	3코스 일치의 길(일부구간) (중림동약현성당~절두산순교성지)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없음)
집전: 기호배 신부(일본 선교 예정)
때, 곳: 3월7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당 (교스트홀) / 문의: 02)727-2407, 2409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천주교 농부학교 15기 모집

대상: 관심있는 누구나 / 인원: 총 30명(선착순)
때: 4월4일(목)~6월22일(토) / 월 2회 격주 목·토요일
곳: 가톨릭회관 205-3호 및 우리농 실습장(경기도 양평군 부용리)
교육비: 15만원(실습털발 10평 11월까지 지원) / 우리는 1005-502-895550 천주교서울대교구 우리농본부
문의(신청마감): 02)727-2277, 2363 / 3월22일(금)까지
자세한 교육 내용은 홈페이지(www.wrn.or.kr) 참조

생명위원회

1) 3월 임시신부와 태아축복식
때, 곳: 3월9일(토) 16시, 생명위원회 5층
준비물: 미사준비 일체
신청방법: 3월6일(수)까지 02)727-2367로 신청
2) 참생명학교 기초과정 7기(zoom)
때: 3월6일~4월24일 매주(수) 20시~21시30분
교육비: 5만원
3) '이웃들을 위한 성, 생명, 사랑' 이야기 자연주거(FF) 교육 14기(zoom)
때: 3월7일~5월16일 매주(목) 20시~21시30분
교육비: 부부 5만원, 개인 3만원
문의(신청): 02)727-2351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및 예비신학생 3월 모임

1) 성소후원회 월례미사(새사제 집전) / 문의: 02)727-2123
때, 곳: 3월8일(금) 14시, 명동대성당 / 첫째주 금요일 이 공휴일인 관계로 둘째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서울대교구 예비신학생 3월 모임

학년	때	곳
중1	3월3일(일) 오전 9시	성신교정 대성당
중2	3월10일(일) 오전 9시	
중3	3월17일(일) 오전 9시	
고1	3월3일(일) 오전 9시	성신교정 대건관 서편성당
고2	3월10일(일) 오전 9시	성신교정 대건관 서편성당
고3 일반	3월9일(토) 오후 2시	성신교정 대성당

모임에 처음 참석하는 중1~고2 학생은 본당 사무실에서 등록 후 본당 신부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성소국 홈페이지 참조) / 처음 나오는 고3 및 일반의 경우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먼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청년 Hello 기도 2024 / 문의: 02)727-2031

신청: http://culture.catholic.or.kr / 첫모임: 3월5일
때: 매일 첫화요일 19시30분~21시,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3월5일부터 매주(화)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 A313호(구 계성여고)
회비: 1만원(4회) / 문의: 010-4565-8898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내 마음의 복벽 분당’ 미사)
때, 곳: 1407차 미사 2월27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당: 서울대교구 연안 분당, 개성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복벽분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갤러리1898 전시 안내 및 무료특강 / 문의: 02)727-2336, 7

1) 갤러리1898 전시 안내
이효일 개인전: 1전시실
박찬희 개인전 '최암업 신부 일대기': 2, 3 전시실
전시일정: 2월28일(수)~3월7일(목)
2) 2024 갤러리1898 무료특강
인원: 강좌별 선착순 40명 / 곳: 갤러리1898 제3전시실
신청: 인스타그램 @gallery1898 프로필 링크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제출

3월23일(토) 16시~17시30분	전례성물과 14처 이야기	신정은 (57공작소 대표)
4월20일(토) 16시~17시30분	미술품 보존 이야기	유난이 (리움미술관 보존연구원)
5월18일(토) 16시~17시30분	중세 필사본 이야기	김유리 (전레미슬연구소장)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4년 전반기 강좌 / 문의: 02)727-2379

접수기간: 2월6일(화)~29일(목) /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접수: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접수

1) 명동 오전 정기강좌(정기강좌 및 나눔터학교)
때, 곳: 3월11일~6월17일 매주(월), 명동교구청 내 강의실(15주 강의)
강의시간: 10시30분~12시30분
개강미사: 3월11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회비(교재 지급): 정기강좌 8만원, 나눔터 7만원
강사신부 및 강의실 홈페이지 참조
2) 청년(마르코 복음), 직장인(정기강좌 5권) 성서못자리
때: 3월6일~6월19일 매주(수) 19시30분~21시(15주 강의)
개강미사: 3월6일 19시30분, 명동 소성당
수강료(교재지급): 청년 5만원, 직장인 8만원
3) 미주 온라인(zoom) 성서못자리 정기강좌(5권-동부 화요반 · 서부 목요반 / 3권-동부 화요반)

수강기간: 3월5일~6월13일(매주 1회 60분 강의 / 한 학기 15회 수업) / 회비: 8만원(수료 포함)
4) 온라인 성서못자리('에드워드' 플랫폼 활용)
수강기간: 3월4일~6월30일 / 회비: 10만원

인준단체 알림

모임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3월13일~16일(추자도)·3월18일~20일·3월23일~26일(추)·4월11일~13일·4월16일~18일·4월20일~22일·4월24일~26일·4월28일~5월1일(추)·5월2일~4일·5월6일~8일·5월17일~19일·5월22일~24일·5월26일~29일(추)·6월1일~3일·6월12일~14일
문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2월27일	이상기 회장	3월5일	김종국 신부
-------	--------	------	--------

렉시오 디비나 피정

곳: 양주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주최, 양주시)
문의: 010-5230-2986(cafe.naver.com/monteoliveto)

1일 당일	렉시오 디비나와 첫 토요일 신심미사 3월2일(토) 14시~17시
4박5일	3월27일(수) 15시~31일(일) 점심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성경 완독	3월16일(토)~24일(일), 4월19일(금)~27일(토)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4월12일(금)~14일(일)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자연 피정

자연	3월10일~12일, 3월16일~18일, 5월14일~16일, 6월10일~12일, 6월22일~24일, 7월19일~21일, 8월23일~25일
성지	3월21일~24일, 4월13일~16일, 4월25일~28일, 5월2일~5일, 5월8일~11일, 5월19일~22일, 6월3일~6일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원주교구)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3월28일(목)~31일(일) 3박4일	성주간 피정(기도학교)
4월19일(금)~21일(일)	정순택 대주교(서울대교구)
5월17일(금)~19일(일)	허영엽 신부(서울대교구)
6월14일(금)~16일(일)	강한수 신부(의정부교구)

서울대교구 성령새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밤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후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젊은이 해외선교체험

대상: 40세 이하 미혼 남녀(신자) / 문의: 010-5715-1702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선교수녀회 젊은이사도직
때, 곳: 7월17일~24일(7박8일), 필리핀 마닐라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피는기도모임)

주제: 디지털 시대의 단식(영적 미니멀리즘)
때, 곳: 3월2일(토) 15시~18시(사순 피정),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하부내포성지 도보순례

때, 곳: 4월27일(토), 신시도(세만금)·불무골·산막골(도보구간) 작은재 / 출발: 서울 명동(대형버스)
회비: 1인 6만원 /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

북방선교회 사순대피정

때: 3월4일(월) 9시30분~17시 / 회비 없음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강사: 김웅렬 신부
문의: 010-6245-6096 서울대교구 북방선교회

2024년 치유은사 세미나 철야 기도회

때, 곳: 2월27일~5월14일 매주(화) 21시30분~다음날 4시(12주,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회비 없음
미사·안수 있음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한티 가는길(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때, 곳: 1차 3월21일~23일·2차 4월10일~12일·3차 5월6일~8일·4차 6월6일~8일·5차 9월25일~27일·6차 10월10일~12일·7차 11월25일~27일, 왜관 피정의 집(3차·6차 연화리 피정의 집) / 회비: 25만원
계좌: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 문의: 010-6791-0071

인천교구 지혜의샘(북방선교회기도공동체) 프로그램

곳: 지혜의샘(부천시 경인로 61-1) 5층 / 010-3248-9705
1) 사순 대피정: 3월6일(수) 10시~17시30분
강사: 맹진학 신부, 이용권 신부, 한영임 회장
2) 전인적 특별 치유 피정: 3월18일(월) 10시~17시30분
강사: 윤민재, 서인석 신부, 한영임 회장
3) 사순작정 감사 대피정: 3월25일(월) 10시~17시30분
강사: 맹진학 신부, 한영임 회장

교육

성물·묵주조각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묵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가톨릭교리신학원 영성강좌

미사 전례와 성가(The liturgical chant of Mass)
강사: 박민식(가톨릭대학교 음악과 겸임교수, 교회 음악전공) / 회비: 10만원(사전 접수·현장 접수)
때: 3월7일~6월13일 매주(목) 15시50분~17시30분
문의: 02)747-8501(내선 2번) 가톨릭교리신학원 교무과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말씀: 조성풍 신부(명동대성당 주임)
주제: "사랑에 취하여라"(아가 5,1)
때, 곳: 3월10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 문의: 02)753-8765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대상: 초5~고2 / 미국·아일랜드·스위스
단·장기 학교 입학 및 대학 컨설팅
문의: 02)2258-8983(www.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추가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추가모집: 2월29일(목)까지 원서접수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오푸스데이 도림동교육센터 신입생 모집

대상: 재학 중인 남학생 / 홈페이지: dorimdongcenter.org
내용: 복합기 기숙사 학생 모집, 가족과 공부 분위기, 여러 교육 프로젝트(문화·봉사활동·문학·운동·국제교류 등), 개인방+개인화장실
운영·영성지도: 동아시아국제교류재단·오푸스데이
문의: 010-2554-1507(dorimdongcenter@gmail.com)

CaFF영화제작워크숍 수강생 모집·영화 치유 미사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1) CaFF영화제작워크숍 12기 수강생 모집
때: 3월6일~6월15일 매주(수) 19시~21시20분(15주)
접수: 홈페이지(caff.kr) 참조
2) 2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2월28일(수)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물이솟는샘 '예담영성' 교육 개강

주1회·1시간30분 교육 / 문의(접수): 02)472-3217
가톨릭영성아카데미 물이솟는샘

1. 나의 하느님	3월18일(월) 10시30분, 서울대교구청 501호 / 12회	홍성만 신부
요한 1서	4월8일(월) 11시 가톨릭회관 205호 / 6회	주수옥 신부

베네딕도 성서학교 2024년 1학기 / 문의: 010-9085-9722

때, 곳: 해당요일 10시~12시30분, 뚜렛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 카페: http://cafe.naver.com/bbs3004

1학년	3월5일(화)	구약입문·모세오경	김애란켈린수녀
2학년	3월8일(금)	예언서	고요새파나수녀
3학년	3월7일(목)	신약입문·마르코 복음	김애란켈린수녀
4학년	3월6일(수)	바오로 친서	김레나수녀

34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기도학교 모집

대상: 가르멜 기도를 배우고 살고 싶은 교우
주최: 전교가르멜수녀회 / 2년 과정

매월 2·4번째	(화) 대면반 10시~12시30분 (목) 대면반 10시~12시30분 (화) Zoom반 19시30분~22시	영성의 집(사작동) 문의: 02)737-7764, 010-4495-7764
매월 1·3번째	(수) 대면반 10시~12시	서울 본원(통의동) 문의: 010-2037-9262
매월 2·4번째	(수) Zoom반 20시~22시	서울 본원(통의동) 문의: 010-5773-0986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토) 13시30분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성 김대건 성가단 상반기 정기 단원 모집
 대상: 음악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 / 문의: 010-4197-7441
 때, 곳: 매주(수) 19시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은평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안내봉사 / 주1회 3시간, 요일 선택
 대상: 40세~65세 이하의 심신이 건강한 남녀
 문의: 02)2030-3456 자원봉사센터

무지카사크라 서울 합창단 단원 모집
 교회음악, 무반주 다성음악전문 무지카사크라
 서울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 만 55세 미만 남녀 교우 / 문의: 010-9464-0680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30대 가톨릭 신자 / www.logoschoir.org
 활동: (일) 16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 010-3006-0810
 오디션: 3월10일(일) 17시, 명동대성당
 명동성당 홈페이지 단체모집란 참조(pc버전)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상반기 신입단원 모집
 대상: 만 18세~만 39세 남녀 가톨릭 신자
 활동: (일) 12시 교중 미사 및 대축일 미사
 오디션: 3월9일(토) 13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3월7일(목)까지 이메일 접수(명동성당 홈페이지
 (PC버전) 단체 모집) / 문의: 010-3211-5195 (문자)

서울대교구 오라시오 시니어 합창단 단원 모집
 성가로 하나되는 합창단 활동을 통하여 제2의 삶을
 의미있고 활기차게 봉사하며 보내기 원하는 시니
 어 단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010-3763-8681 단장
 대상: 55세 이상 남녀 가톨릭 신자
 모집파트·오디션: 각 파트·가톨릭 성가 1 곡

미사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켈기도, 미사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3월2일(토)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때: 3월2일(토) 10시 /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곳: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 문의: 02)793-2070

도미니코 수도원 월요 미사

영적 대화를 통해 주 사랑을 경험하는 곳
 때, 곳: 매주(월) 15시(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 4.19
 민주묘지역에서 70미터) /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령과 가정을 위한 기도과 미사
 때, 곳: 3월1일(금) 11시30분, 절두산 성지(전철 2
 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2)3142-4434

웅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2월26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김정옥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최광희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서울고속버스터미널(준)성당 미사 / 문의: 02)535-6604
 곳: 서울 고속터미널 경부선 10층(옥상공원 남산방향)
 (화~금) 12시 미사 (토) 13시30분(토요 주일 미사)
 (일) 11시·17시·21시(2월18일 사순 제1주일 재개)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or.kr)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나루 상담센터
 곳: 논현동 / 대상: 심리적, 정신적인 어려움으
 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가톨릭여성연합회 2월 정기월례회
 미사·특강: 홍성남 신부(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때, 곳: 2월27일(화) 10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
 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78-7543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라비아의수녀회)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성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
 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
 되어 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하늘의 문 성당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분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4년 하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전진상 교육관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w.jiscen.or.kr)

자아의 통합과 영성	대면강의 및 그룹훈련 3월7일부터 매주 (목) 14주, 온라인 동영상 녹화강의
인문학 산책- 주역과 삶의 지혜 I	3월13일~5월29일 매주(수) 14시~16시
상처의 치유 그리고 두 번째 탄생	3월2일(토) 10시~13시
마음의 상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여정(사순시기)	3월2일(토) 15시~3일(일) 15시(1박2일)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직원 모집
 분야: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 전담간호사(간호조무사)
 인원: 2명 / 파트타임 지원도 가능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
 항 참조하여 지원서 접수 / 문의: 02)2634-1760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모집분야: 편집, 판매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
 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i886@catholicbook.kr) 접수

직원·봉사의료진 모집(성가복지병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의: 02)940-1503 / 이메일: hfh1990@hanmail.net

직원	내과 전문의 0명, 시설기관 및 전기기사 0명
봉사자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봉사의료진 모집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거룩한 말씀의 회	2월25일(일) 16시 / 수시	신내동성당 수녀원	010-8446-3217
성령 선교 수녀회	3월2일(토) 2시~4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26길10	010-2691-4895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군자동)	010-8920-2111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수녀원(전철 2호선 건대입구역)	010-7197-1390 효주 수녀
천주교서울교구천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회	3월3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2024년 2월 추천 도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비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시리라.”

(호세 6,3)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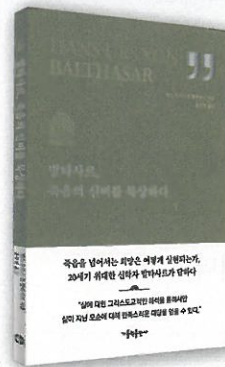


예수의 최후 기도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 지음 | 1만3천원

우리 시대의 신비가, 슈파이어
‘말씀’ 안에 있는 ‘은총’을 이야기하다예수님의 마지막 일곱 말씀으로
가톨릭교회의 칠성사를 재발견하는 시간

신간

발타사르,
죽음의 신비를 묵상하다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 지음 | 1만3천원

현대 신학의 거장 발타사르,
그의 시선으로 탐구한 죽음의 신비죽음 속에서 인생의 모순을 넘어서는
참된 희망의 빛을 발견하다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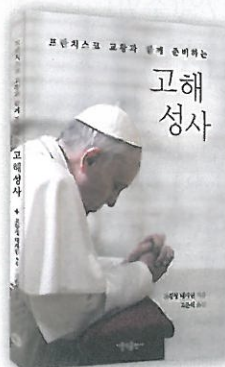


성시간을 위한 기도서

이재현 편저 | 1만원

우리 주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을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묵상하는 시간성녀 마르가리타에게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엮은 기도와 묵상

사순 시기 추천 도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준비하는
고해성사

교황청 내사원 지음 | 1만원

하느님의 위대한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고해성사교황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는
고해성사의 참된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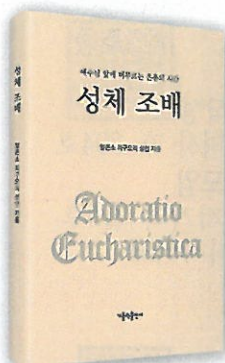
사순 시기 추천 도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데이비드 나이트 지음 | 3천5백원

용기와 희망, 충실한 삶으로 이끄는
십자가의 신비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진정한 사순의 의미를 만나다

사순 시기 추천 도서



성체 조배

알폰소 리구오리 성인 지음 | 1만3천원

성체 앞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서성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현존을 깨닫고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다



제2시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 임 신 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부주임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안양회장 : 이범자(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칭찬하자!”

◎ 본당 소속 단체 홍보

5월말까지 신입 단원 및 단체 봉사자 모집을 위한 홍보를 미사 시간 및 성당 마당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도서출판 <성서와함께> 문서선교 일정 안내
<성서와함께>에서 신앙에 도움을 주는 도서와 성물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3월 2일(토) ~ 3일(주일)

◎ 십자가의 길

일시 : ~ 3월 22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미사 후

* 3월 29일(금) 오후 3시

◎ 청년 십자가의 길

일시 : 2월 25일(주일) ~ 3월 17일(주일)

매 주일 청년 미사 후

◎ 3월 1일(금) 10시 미사는 없습니다.

* 사무실 휴무입니다.

◎ 성모신심미사 : 3월 2일(토) 오전 10시

◎ 유아세례 : 3월 3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

일시 : 3월 3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 연례회 미사 : 3월 5일(화) 오전 10시

◎ 여성 울뜨레야 : 2월 27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대건회 60대 월례모임

일시 : 2월 29일(목) 오후 7시 / 201호

문의 : 서종만 요셉 회장 (010-4248-0721)

◎ 2024년 첫영성체반 신청안내

대상 : 초등부 3~6학년

신청기간 : ~2월 25일(주일)

방법 : 온라인 신청서 및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첫모임 : 3월 2일(토) 오후 3시 미사 후 304호

◎ 청년 사순시기 성경 필사 중간모임

일시 : 3월 10일(주일) 청년 십자가의 길 후

대상 : 청년 누구나 / 장소 : 지하식당

◎ 청년 봄 피정

일시 : 4월 27일(토)~28일(주일)

대상 : 청년 누구나

장소 : 복자사랑 피정의 집

신청기간 : ~ 3월 31일(주일)

참가비 : 45,000원 / 카카오톡 7979-88-91578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1월~2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이수민	안나마리	1-1	문지영	베드로	1-3
김명숙	헬레나	2-5	조희선	율리아	3-1
박옥주	마리아	3-3	이용석	가브리엘	3-4
박지영	소피아	5-1	조인빈	보나	5-2
윤이래	엘리사벳	6-3	성달호	요셉	7-2
한지훈	베드로	9-2	김종훈	그레고리오	9-5
김수진	크리스타나	9-5	박소현	레이철	10-2
김영남	안젤라	10-2	김명덕	루카	10-2
윤원정	아델라이드	10-4			

◎ 전입 교우 환영식 : 2월 25일(주일) 교중미사 중

◎ 청년성서모임 새암성서 봉사자/그룹원 모집

일시 : 3월 3일(주일)까지

과목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 마태오 대표봉사자 (010-2479-9331)

◎ 청년배움터바로 69기 새내기 모집

대상 : 만 40세 이하 청년 누구나

모집 : 2월 4일(주일) ~ 3월 16일(토)

여는마당 : 3월 17일(주일) 오후 3시 / 304호

문의 : 큰일꾼 이사벨라 (010-2107-3054)

◎ 교무금 책정 현황 (2024. 2. 18)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3년 책정율	2023년 납부율
2,025	528 (26.1%)	470 (23.2%)	43.7%	42.3%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감사헌금 (2월 12일~18일)

이숙자일십만원	김수혜일백만원
곽선모오천원	주인석삼십만원
최종태삼십만원	김은순오만원
익 명일십만원	송은영오만원
익 명오만원	김희진오만원
함영동일만원	이미경이십만원
박명숙오만원	조세빈일십만원
권정자일십만원	오혜정오만원

◎ 우리들의 정성(사순 제1주일)

교 무 금9,330,000원

주일헌금6,501,000원

입당 124 봉헌 221, 511 성체 162, 172, 169 파견 119



나를 주님앞에 서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땅에서 걸으리라